

石洲集 국역 출판과 權韓先生

석주집

권필선생

(역자 : 정민 교수, 한양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꿈을 적다 記夢

꿈속에 외로운 배를 강가에 대고 보니
 바들 강변 한 갈래 굽이굽이 이어졌네.
 시냇가 양편엔 빨래하는 아가씨들
 물목의 아래위로 슬을 피는 짐들이.
 모래밭엔 갓 나온 부들의 작은 새일
 더덕 해에 팔배나무 꾸벅꾸벅 조는 듯.
 다리께 주막에서 좋게 한잔 하려는데
 개울개울 관가 언뜻 개구리를 어이하리.

夢泊孤舟江水源
 柳邊一迤斜斜斜
 溪東溪西浣紗女
 巷北巷南沽酒家
 淺沙初茁小蒲萊
 蓮日欲睡甘棠花
 橋頭橋頭謀一醉
 奈此關關官道蛙

병중의 그윽한 회포 病中幽懷

봄 들어 누운 지도 열흘이 넘고 보니
 약물로 날 지탱하니 갖은 신고 괴롭구나.
 새벽 해 처마 들자 새들은 지저귀고
 낮 바람 나무에 부니 밧소리 새로워라.
 '뜻'이라 허공에 쓰며 뜬세상 슬퍼하고
 눈 감고 아스라이 옛 사람 꿈을 꾸네.
 뒤 알리 병중의 위태란 때 도 일음을
 이 마음 어서든 천진을 드러내리.

春來伏枕動經旬
 藥餌扶吾備苦辛
 晨旭入簷鶯語好
 午風吹樹柳聲新
 書空喚世嗚呼生
 書空喚世嗚呼生
 昏眼依依夢故人
 此心隨處露天真

又岡 權彝赫 본원 명예총재

‘인생의 졸업과 시작’ 에세이 7집 발간

세계걸력재로운동본부 총재(본원 명예 총재)이신 又岡 權彝赫(90·김포·추밀공파 34世)께서 지난 3월 20일 신광출판사 권으로 '인생의 졸업과 시작'이란 에세이 7번째를 발간했다.

이 책은 권총재님께서 올해 9순을 맞이 하면서 새로운 인생의 시작이라고 믿으면 희망이 생기고 용기가 생기며 새로운 뜻을 찾고 이에 걸 맞는 나날을 보내자고 자신에게 다짐하면서 지난 한해동안 쓴 글과 구순을 맞이하는 심경, 인생의 정점 두 편이 수록되어 있다.

9순을 맞이하여 첫째로 본인이 지내온 인생에 충분한 용기가 갖질 못했었다는 점을 들고 있으며 그러나 젊은 시절에는 비교적 용기가 풍부한 삶을 지니고 있

다는 평을 듣기도 하었다고 말하고 있다. 다음으로는 유머가 부족한 인생을 걸어 왔다. 그러나 구순을 맞이하면서 두가지의 인생의 초점을 맞추려고 생각하고 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구순을 맞이하니 작년(2011년)처럼 천재(天災)와 인재(人災)가 뒤범벅이 되는 일이 올해부터는 자취를 감추었으면 하는 것이다.

구순을 맞이해서도 저자의 인생 모토의 하나인 청춘만세(青春萬世)를 견지하고자 하는 마음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다는 점을 새삼 강조하면서 올해 부터는 90정춘 이라는 말을 유행시키고자 하는 생각이 문득 든다고 말하고 있다.

그리고 몇 살을 인생의 정점으로 하는가는 개인에 따라 다르다.

필자는 이 문

제에 대하여 비교적 빈번하게 생각해 왔는데 9순을 정점으로 하기로 했다. 즉 9순 때까지 인생길을 오르고 그후부터는 내려가는 것이다.

9순을 인생의 정점의 해로 삼아 등산하고 그후부터 하산한다는 이야기이다. 인생의 하산길에 3가지 조건으로 사는 보람을 위한 목표를 세울 것, 건강할 것, 경제적 조건을 갖출 것 등을 제시하면서 모든 어려움을 수용하고 남은 인생을 즐겁게, 행복하게, 건강하게, 아름답게 지내는 것이 최상의 방법이라고 말하고 있다.

현 한국아카이브즈포럼, 우강건강포럼 대표로 크게 활동하면서 '지금' 이시간을 가장 "貴"하고 "重"하게 생각하면서, 생(生)을 천배해 가고 있다.

(권오복 편집위원)



투고

잘 알려지지 않은 자연관광 명소 월출산(月出山)



▣ 향촌 권오창

월출산(고809m)은 1988년에 지정된 월출산국립공원의 중심에 있으며 전남 영암군 영암읍 군서면과 강진군 성전면에 걸쳐있는 석영반암 화강암 등의 암봉으로 이루어진 명산이다.

월출산의 명칭은 삼국시대에는 월라산이라고 불렀고 고려 조선시대에는 월출산으로 이름 부쳐졌다. 산세는 암봉이 뾰족 뾰족하고 골짜기는 경사가 급하다.

영암읍에서 바라보면 평야지대 지평선에 우뚝 솟은 용태를 볼 수 있고 보름달이 뜰 때에는 야경 또한 신비의 장관이다. 대장고요에 불리는 '영암 이리리' 또한 이곳의 풍광을 잘 나타내는 가사로 손색이 없다고 할 것이다. 이산의 최고봉은 천황봉인데 이 봉우리를 중심으로 동쪽 강진쪽으로는 사자봉이 있고 영암 쪽으로는 장군봉이 솟아있다. 남쪽으로는 금류 경포대 계곡의 맑은 물은 시원한 계류를 이룬다. 서쪽으로는 바람재에서 구정봉(고738m)이 뻗어있다. 구정봉에는 9곳의 샘이 있는 곳이다. 움푹 파여진 바위샘이 대부분이다.

월출산 등산의 시작은 영암읍에서 출발하여 천황사 입구 민박단지에서 걸어서 구름다리를 걷는다. 이 구름다리는 월출산의 명물이다.

계곡을 가로지른 지상의 높이는 120m 이고 전장은 52m 폭은 1.6m의 튼튼한 철 다리이다.

이 다리를 지나 천황봉을 올라 구정봉을 거쳐 바람재를 지나고 갈대밭이 펼쳐지는 미왕재 내리막길로 도갑사에 이른다.

이 코스는 월출산 능선을 종주하는 코스로 약 5시간에서 6시간이 소요된다. 등산 시간에 구역을 받는다면 종주코스를 택하지 말고 천황사에서 천황봉까지 올라갔다 다시 내려오는 등산방법이

가장 알맞을 것이다. 최고봉에서 동서 남북을 모두 조망할 수 있으니 좋은 방법이 될 것이다.

이와 반대 방향인 도갑사에서 천황봉으로 올라와다가 다시 내려가면 또한 등산 시간을 조정할 수 있을 것이다. 이 2가지 방법은 등산 소요시간을 약 3시간 정도 줄여준다.

이 이외의 등산 코스는 금류 경포대 계곡에서 바람재까지 또는 도갑사에서 미왕재 까지 갔다가 돌아오는 코스는 약 1시간 30분이 소요되며 가벼운 등산 코스이다.

이제 월출산의 명소를 찾아 등산하면서 재미있는 사실을 알아보자.

월출산의 주능선인 천황봉에서 늘 바람이 세차게 부는 바람재까지 걸다가 보면 1km 구간 내에 남근(男根)바위와 마주친다.

이 힘 있게 우뚝 솟은 남근 바위는 그 높이가 10m는 족히 된다.

이를 지나서 구정봉 아래 동굴의 길이가 10m정도 되는 여근(女根)바위를 보면 단면 월출산은 음양의 조화를 함께 가지고 있는 조물주에게 감탄할 수 있다. 등산객은 모두 그곳에서 사진을 찍는다. 여근 바위 굴속에서 일관대에 여자들이 배를 찼다고 하여 배를 바위라고도 한다.

또한 구정봉 아래 용암사지에는 마애여래좌상(국보제144호)이 있다. 그 마애상은 바위를 사진들 같이 직사각형으로 파내어 그 안에 불상을 양각한 것이다. 이는 신라시대 불교 미술을 살펴볼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월출산 일대에는 절과 옛 절터가 있는데 천황사 무위사 대성사 도갑사 용암사지 등이 있다. 특히 도갑사는 조선 국사가 창건하였는데 왕인 박사 유적지에서 약 1km 거리에 있는 비둘기 숲인

구림(鳩林)마을에서 신라말기에 도선 국사가 태어나자마자 그 마을에 버려진 상태에서 비둘기들의 보호를 받아 생명을 구하고 그곳에서 장성하였다는 전설이 전래되어 오고 있다.

도갑사에는 해탈문(국보 제50호)과 석조여래좌상(보물 제89호)등을 살펴볼 수 있다. 월출산으로 가는 길목인 이 구림마을은 또한 왕인 박사가 태어나고 성장하고 학문을 닦은 곳이다.

왕인 박사는 백제 근초고왕때 학자였다. 왕의 명을 받아서 일본국에 건너 10권과 천자문 1권을 가지고 일본에 건너가 유학과 한학을 전하여 일본의 문화 발전을 가져온 큰 역할을 한 인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역사적인 사실이 일본 고지기(古事紀)와 니혼쇼기(日本書紀)에 기록되어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그 기록을 찾을 수 없다.

그는 일본에 살면서 일본 조정의 학문에 관한 일을 맡아 자손대대로 살았다고 한다. 특별히 구림마을에서 약 1km 떨어진 상기동(聖基洞)에 1987년에 왕인사당을 세웠고 그 주위를 공원화 하였다. 왕인 박사에 대한 한국과 일본 국가의 친선문화 교류행사를 매년 벚꽃 피는 4월 달에 그 곳에서 다양한 축제 형식으로 치러지고 있다. 이때를 맞아 등산과 관광과 축제 참여는 큰 보람이 있다고 생각한다.

월출산으로 가는 교통편은 호남고속도로 광산IC를 나와서 13번 국도로 해남 방향으로 나주를 거쳐 영암으로 들어오면 된다. 서울에서는 자가용으로는 약 5시간 걸린다. 대중교통은 서울 고속버스터미널에서 승차하면 된다.

숙식은 농산물과 해산물이 풍부한 영암에서 또는 월출산자락 모퉁 민박단지에서 남도의 정취를 느낄 수 있다.



우강 권이혁 전장관 에세이

마이동풍 II : 백남준 광시곡

KBS가 방송 80년 특별 기획으로 2007년 7월 28일(토), 방영한 '백남준 춤추는 광시곡(狂詩曲)'을 시청했다.

광시곡(Rhapsody)은 민족적·시사적인 느낌을 가지는 자유로운 형식의 기악곡을 뜻한다.

벽두에 넥타이 자르기 장면부터 시작된 이색적인 화면이 나에게 환상적이고 놀라웠다.

연주하던 피아노에 머리를 받는 장면, 뉴욕 거리에서 바이올린을 줄에 묶어 끌고 다니는 장면, 연주하던 바이올린을 책상 위로 던지는 장면, 무대에 누워서 첼로를 연주하는 여인 상등 나로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화면들이 계속되었다.

전통예술을 벗어나 전위예술로 간다는 설명, 설치예술·비디오 예술·피아노 등을 포함한 종합예술이라는 설명, 미디어 예술이라는 설명 등 여러 가지 시각으로 이야기 진행되었지만 나에게 있어 알 듯 모를 듯한 설명이었다.

백남준(白南準, 1920-2006)씨와 나 사이에는 경기중학 선배라는 것 외에 별 연인이 없다. 그는 47회 졸업생이고, 나는 37회 졸업생이다. 굳이 또 하나의 연인을 찾는다면, 그가 1965년 제5회 호암상(예술부문)을 수상했을 때, 나를 보고 이름 가운데 자(彝) 자를 말함)가 너무 어려우니 바꾸는 것이 좋겠다고 하며 답소를 나누었던 일이다.

나는 그에 관하여 별로 아는 것이 없었지만 현재 하와이에서 거주하고 있는 나의 6촌 처남인 정기석(鄭基錫) 형과는 절친한 사이여서 정 형으로부터 가끔 백 씨에 관한 이야기를 들곤 했다.

수상식은 그의 부인 구보다 시게코(久保田 成子) 여사도 와 있었는데 미국에서 몇 차례 회고전을 개최하기도 했다.

1992년에는 한국 최초 회고전이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열렸다.

2006년 1월 29일(현지시간) 백남준 씨는 미국 마이애미 자택에서 타계했다. 비보가 전해지자 전 세계가 애도했다. 유해는 그의 활동 무대였던 뉴욕으로 옮겨졌다.

2월 4일, 뉴욕 맨해튼 매디슨 애비뉴의 프랭크캠벨 장례식장에서 거행된 영결식에서는 아무도 예상 못 했던 깜짝 퍼포먼스가 벌어지기도 했다. 400여 명의 조문객이 백 씨가 평소 애용했던 퍼포먼스를 흉내 내 넥타이 자르기를 재현한 것이다.

영결식의 클라이맥스는 존 레논의 부인 오노 요코 여사가 백 씨의 조카인 켄 하쿠다 씨의 넥타이를 자른 일이다. 그러자 400여 명의 조문객도 미리 준비된 가위로 옆자리 조문객의 넥타이를 잘랐다. 조문객들은 잘라낸 넥타이 조각들을 백 씨의 시신 위에 바치며 예술의 거장에 대한 존경을 표했다. 넥타이 자르기는 1962년, 백 씨가 독일에서 플럭서스 그룹을 창시한 요제프 보이스를 만난 뒤 관객의 넥타이를 잘랐던 파격적인 퍼포먼스에 연유한 것이었다.

우리나라에서는 1월 31일, 과천 국립미술관에 소장되어 있는 그의 작품 '다다이즘' (1988) 앞에 분향소가 설치되어 조문객들을 받았고, 모교인 경기고등학교 100주년 기념관에서는 3일 오후 7시에 '백남준 추모의 밤' 이 개최되었다. 그의 작품은 전 세계에 산재해 있는데, 우리나라에도 250여 점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전 세계가 칭송하고 있는 백남준의 예술에 대해 나는 너무나 지식이 없다. KBS가 방영한, '백남준 춤추는 광시곡'을 시청해도 나는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많았다.

나는 7월 31일 오후에 셋째 딸 동희(松瀾)와 함께 KBS 신관 특별전시실에 마련된 '방송 80년 KBS 특별전 -백남

준 비디오 광시곡(NAM JUNE PAIK Rhapsody in Video)'을 관람했다.

설명하는 가이드의 말을 들어도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았지만, 동희의 설명에는 이해 가는 점이 많았다.

이 특별전에서는 백남준 씨의 황금시대에 해당하는 1984-2001년 작품을 집중 조명하고 있는데, 특히 가로 10미터, 세로 6미터의 전자 '거북'을 비롯해 30여 점의 중대형 작품들이 800여 개 모니터로부터 전자 빛을 발산하고 있어서 미학적 한기증을 유발하기도 했다. 166개의 텔레비전 모니터를 사용한 초대형 전자 '거북'은 1988년에 독일에서 제작되었으며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선보인 작품이다.

1991년 작품인 'M 200-Video Wall' 또한 눈길을 끌었다. 흘러나오는 음악을 듣자 동희는 금세 모차르트의 '레퀴엠(Requiem) 장사를 위한 미사곡'이라고 알려 주었다.

그리고 보니 2006년 11월 25일, 예술의전당 콘서트홀에서 콘서트무지쿠스 빈(Concentus Musicus Wien)의 연주와 쇤베르크 합창단(Schönberg Chor Wien)의 노래를 들은 일이 생각났다. 문외한인 나에게도 모차르트의 '레퀴엠'은 감동적이었다. VideoWall은 작은 미디어를 집합하여 만든 거대한 벽인데 백남준, 요셉 보이스 등 전위 예술가들의 모습이 나타난다. 훌륭한 배경음악도 일품이다.

어쨌든 백남준 씨가 비디오아트와 창시자요 매체 예술의 대부라는 것을 알게 되었으며, 그의 천재적 예술성과 창작성을 이해하게 됐다.

백남준 씨의 위대함을 이해하려고 많은 노력을 해봤지만 역시 내 자신은 행위 예술에 대하여는 수준 미달임을 알게 되었다.

백남준의 예술에 대하여 나는 마이동풍 형(형)이나 우이독경 형 인간에 불과하다는 점을 솔직하게 자인(自認)할 수밖에 없다.

이달의 시

서울 성곽에 서서

청하권 대욱

익어가는 봄이 성벽을 오르고 있다
 영춘화 꽃 이파리
 낙장거리로 들누운 심우장 오름길에
 만해 웃음 한 가득이 솔바람에 실려와
 성북동 오름길
 혈떡이는 숨소리는 성곽계단 길에 널어두고
 황사 머물던 창공 밑에 혼자 서성인다

하필이면 오월 날에 낙화를 안겨주고
 연푸른 담쟁이덩굴 얽힌 전설을 이야기하는지
 사랑을 노래하는 산새들만 알 것이라는데

하품 한 번 내지르는 봄의 날은
 서울성곽에 가두어져 있다

성남갑 같은 도시에 갇혀던
 우스운 존재 하나, 개미처럼 탐욕스런 내
 영욕은
 익어가는 봄의 정령이 되어
 이 성곽을 탈출하려 한다

매정한 성벽의 봄은
 명년의 날까지 구축하고 있다
 다시 새봄이 없는 것을 예비하고 있다

특별연재

古訓新鑑

▣ 입암서원유사 권 태수

(지나호에 이어)

子曰 見善如不及하고 見不善如探湯하리.

《學心書》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착한 것을 보거든 아직도 부족한 것 같이 하고, 착하지 못한 것을 보거든 끓는 물을 더듬는 것과 같이 하라.”

【解說】
 다른 사람이 선을 행하는 것을 보거든 자기는 도저히 거기에 미치지 못하는 것 같이 하여 더욱 선을 행하기에 힘쓰고 악을 행하는 것을 보거든 마치 손으로 끓는 물을 만졌을 때처럼 악을 멀리 하라.

第二章 省心

항상 행동과 마음을 반성하고 남을 배려하는데 힘쓰라.

사람은 무엇보다도 道를 즐기고 올바른 길을 감으로써 즐거움을 느낄 수 있다.

스스로 살피라 함은 마음속에 그릇됨이 없도록 하는 것이요 행실을 바르게 가지도록 하기 위함이다.

앞을 못 보는 사람이 밤에 등불을 들고 길을 걷고 있는데, 그와 마주친 사람이 “정말 어리석군요? 앞을 보지도 못하면서 등불을 들고 다니십니까?” 하니 장남께서는 “당신이 나와 부딪치지 않게 하려고요 이 등불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당신을 위한 것입니다.”

【解說】
 이미 심삼치 않은 즐거움을 누렸거든 언제 닥칠지 모르는 근심을 막도록 애써야 한다.

【解說】
 짐작치 못한 즐거움이 있으면 짐작할 수 없는 근심이 뒤 따라오기 마련이다. 즐거움을 누릴 때에도 항상 몸가짐을 조심하여 근심거리를 미리 막아야 하는 것이다.

조금 부끄러웠다고 오만불손(傲慢不遜)하게 된다면 그것이 근심과 재앙의 씨앗이다. 곡식의 이삭은 익어갈수록 고개를 숙인다. 인간도 부귀해 질수록 겸손한 마음과 태도를 잃지 말아야 한다.

(다음호에 계속)